

반도체

DRAM 출하, 재차 기대 이상으로 진행

반도체/디스플레이

Analyst 김선우
02. 6454-4862
sunwoo.kim@meritz.co.kr

4Q20 DRAM 출하 강세 진행. 특히 삼성전자의 출하 확대 가속화

당사의 메모리 산업 수요 조사에 따르면, DRAM은 모바일 위주로 실수요 및 선행구매 수요 강세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대치를 능가함. 화웨이 제재 발효 전 선행 구매에 기반한 3Q20 DRAM 출하 강세에 이어, 4Q20에도 기대 이상의 출하 강세가 시현 중으로 관찰 됨. 3Q2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하량 증가율 (BG) 가이던스는 'Flat' 이었으나, 화웨이 중심 모바일 수요 강세에 기반해 공히 5% 수준의 출하 증가를 기록했었음

이번 4Q20 출하 역시 당사 및 시장 기대치를 크게 능가할 가능성이 높음. 4Q20 DRAM BG 가이던스에 관해 삼성전자는 '시장 BG로 예상되는 한 자릿수 초반%'를 상회, SK하이닉스는 '한 자릿수 중반%'로 제시했었음. 당사 역시 두 회사 모두 '5% 수준의 BG'와 '8~10% 수준의 ASP 하락'을 예상했으나, 고객사의 주문 상황을 감안 시 ASP 전망 변화 없이도 출하량 증가율이 기존 기대치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삼성전자의 4Q20 DRAM 출하량이 기대치를 크게 웃돌 전망임. 삼성전자는 '10% 내외', SK하이닉스는 '7% 내외' 수준이 달성 가능한 상황으로 전개 중

모바일 중심 수요 가격탄력성 회복. 이는 '탈압박'의 1차 전개 과정

4Q20 내 판가하락이 추가로 확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가 관찰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모바일을 중심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임. 판가 하락이 충분히 진행되었다는 공감대 속에 2021년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바일 업체들은 내년 중 DRAM 판가 반등을 가정하고 실수요 외 재고 충당 수요를 서서히 발생시키고 있음

당사가 예상하는 2021년 DRAM 업황 개선은 세 가지 '탈압박'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모바일 수요 개선은 그 중 첫 단계임. 특유의 수요 가격탄력성을 기반으로 모바일의 선행구매와 실수요 반등이 발생하고 난 뒤, 재고 소진이 시작된 서버 업체들의 경쟁적 구매가 뒤따를 전망임

특히 DRAM 제조사들이 1) 이미 서버 DRAM 생산 Capa를 상당부분 모바일 DRAM으로 전환해왔고, 2) 완제품 재고는 상당부분 소진해가고 있는 까닭에, 향후 서버 고객 입장에서는 장기 공급 계약에 서두를 수 밖에 없음. 올해 집단 행동을 기반으로 DRAM 가격의 압박 요인이었던 서버 수요는 조만간 '배신의 게임'으로 전환될 전망임. 이후 '탈압박'의 2차 전개는 공급사의 태도 변화와 DRAM 가격 급등 수순으로 구성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